



**HAL**  
open science

A Study of Namjǒng ki [Namjǒng ki-e taehan il koch'al] (XXXXX XX  
X)

Daniel Bouchez

► To cite this version:

Daniel Bouchez. A Study of Namjǒng ki [Namjǒng ki-e taehan il koch'al] (XXXXX XX). Asea yǒn'gu, 1977, 20 (1), pp.189-211. <halshs-00347281>

HAL Id: halshs-00347281

<https://shs.hal.science/halshs-00347281>

Submitted on 15 Dec 2008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 南征記에 대한 一考察

Daniel BOUCHEZ\*

<南征記><sup>1</sup>라는 소설은 시사성을 띤 작품으로 전한다, 1689년으로부터 1692년 사이에 국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유배중인 고관 西浦 金萬重(1637~1692)이 지은 것이다. 李圭景의 보도에 의하면 19세기 중엽 당시에 이 소설은 1689년에 숙종이 閔妃를 廢黜하고 王子를 낳아 준 禧嬪 張씨를 대신 王妃로 들여앉힌 것을 諷諫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내려 왔었다. 즉 <남정기>는 肅宗에 의한 閔妃의 廢黜을 생각하며 이에 관하여 "聖心을 밝혀 드리기 위하여(悟聖心)" 쓰여졌을 것으로 전한다고 기록해놓은 것이다.<sup>2</sup> 그러나 이규경에 의하면 <남정기>의 저자가 김만중이 아니라 김만중의 후손으로 北軒이라는 號를 가진 金春澤(1670~1717)이었다. 이 추정은 근년에 이르기까지 꽤 널리 퍼진 견해이었던 것 같다. 모리스 꾸랑도 1894년에 발표한 <朝鮮書誌><sup>3</sup>에 이 설을 받아들였으며, 日本人 青柳綱太郎도 이 소설의 日譯을 곁들인 漢文版을 위한 서문에 이런 의견을 따랐다.<sup>4</sup>

그 후 1930년에 처음 발표된 <朝鮮小說史><sup>5</sup>에서 金台俊은 <남정기>의 작자를 김만중으로 주장하였다. 金台俊은 이를 위하여 김춘택 자신의 증언이라

---

\* 필자(다니엘 부셰)는 프랑스 國立學術研究院의 研究員. 이 研究에 도움을 베풀어주신 高麗大學校 教授 丁奎福 先生에게 謝意를 表한다.

<sup>1</sup> 이 소설은 흔히 <謝氏南征記>라는 긴 題目으로 불리는 바이지만 金春澤이 일찍이 <北軒集> 16권에서 <南征記>라는 짧은 서명을 쓴 것은 원작에 붙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sup>2</sup> <五洲衍文長箋散稿>, 第七卷(影印本, 서울, 1959, 권 1, p. 231)

<sup>3</sup> M.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 3 vol., Paris, 1894, Suppl., Paris, 1901, vol. 1, p. 391.

<sup>4</sup> 青柳綱太郎, <原文和譯對照 謝氏南征記 九雲夢>, 朝鮮研究會, 京城, 1914년刊.

<sup>5</sup> 金台俊, <增補朝鮮小說史>, 서울, 1939.

는 견실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다. 과연 그는 김춘택이 <北軒集>에서 이 소설의 저자를 그의 종조부라고 한 글을 찾아낸 것이다. 그 글은 아래와 같다.

"西浦頗多以俗諺爲소설, 其中所謂南征記者, 有非等閒之比. 余故翻以文字..."<sup>6</sup>

그러니 김춘택은 이 소설의 譯者에 불과하다. 그 때까지 저자에 대하여 와전해온 것은 한문으로 된 저서 외에는 眞書로 여기지 않던 옛날 선비들의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金台俊은 해설했다. 그리고 임금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고 이규경이 주장한 김춘택의 의향도 金台俊은 문제없이 김만중에 돌려 버렸다.

현대 전문가들은 金台俊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즉 김만중이 <남정기>를 국문으로 지었다는 것과 김춘택이 이를 漢譯했다는 것을 김춘택의 증언에 의거하여 사실로 여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규경이 말한 김춘택의 의도를 저자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金台俊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점에 대하여 金鉉龍씨가 통설을 물리친 바 있다.<sup>7</sup> 그는 그 시대 문헌을 보면 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김춘택이며 또한 그 일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춘택의 종조부 김만중은 그동안 귀양가 있었으며 배소에서 1692년에 죽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후 김춘택과 몇몇 동지들의 지하 활동이 甲戌換局이라는 1694년의 급변에 이르렀고 그 뒤를 이어 민비가 復位하였다. 그 반면 김만중에 관하여는 그가 이 소설을 쓰면서 같은 의도를 가졌었다는 외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김현용씨는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作品中에서 유한림의 결혼 생활 처지와 숙종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많은 實實을 지적도 했다. 이를테면 유사점은 사씨가 폐출을 당하는 일로 끝나는 작품의 전반부에 있을 뿐이고, 그 반면에 중국 남부에서 사씨가 겪는 낭패를 기술하는 후반부는 조선 왕가의 처지와 아무런 관

<sup>6</sup> <北軒集>, 卷16, 囚海錄, 論詩文, 浮雜說.

<sup>7</sup> 金鉉龍著 <謝氏南征記 研究>, 서울 建國大學校 <文湖>, 5 (1969), pp. 140-146.

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의시켰다. 그러므로 왕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자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용씨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 와서야 소설에서 조정에서 일어난 일들과의 몇가지 유사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풍자소설이라고 그릇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현용씨가 양보한 것은 오직 김춘택이 종조부의 소설을 이용할 가능성을 먼저 깨달아 이규경이 전한대로 한역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다음 해에 발표한 글에서 丁奎福<sup>8</sup>교수는 김현용씨의 논거를 반박하려고 힘썼다. 그는 여전히 金台俊 이래 공인되어온 설을 따르고 있다. 필자는 이 토론 중에 교환된 논거들을 재검토하고 또 파리 所藏 <남정기> 두가지 이본의 연구로 드러난 새로운 여건들과 대비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양본 즉 국문 판각본과 한문 필사본의 전승이 제기하는 原文批判(textual criticism)의 문제를 여기서는 다룰 수가 없다. 오직 양본중에서 한문본이 보다 오래 되었고 年記가 있어 1754년이라는 筆寫 年도를 알 수 있다는 것만을 이 자리에서 알려 드린다. 日人 靑柳綱太郎이 발간한 필사본의 戊子年(1768, 1828 ?)에 비해 앞선 연대이다.

파리 소장 국문 판각본은 이렇게 시기 이른 믿을만 한 것이 못된다. 한글로 지어졌다고 한 이 작품의 가장 오래 된 국문본인 듯하지만 김만중이 사망한 지 159년이 지난 1851년에 박은 것이다. 늦게 새긴 목판인데다가 군데군데 누락된 것이 있고 고유명사나 인용문에 오자가 많아 읽기에 불편하다. 한문본에서부터 다시 번역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1851년에 새긴 국문판본에 민비에 관한 암시가 담긴 대목이 있으면, 이것은 김춘택이 가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부 문제도 살펴봐야 하겠다.

-----

---

<sup>8</sup> 丁奎福, "南征記의 著作動機에 對하여", 서울 成均館大學校 <成大文學>, 15-16 (1970년), pp. 1-5.

우선 <남정기>와 관련이 지어진 사실들을 당시 문헌을 참조해 상기시키기로 하자.

仁敬王后 金씨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1680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분은 김만중의 형 金萬基의 딸로서 김만중의 姪女였다. 喪配를 한 임금은 張씨라는 젊은 궁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實錄을 보면,<sup>9</sup> 王大妃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그녀를 비밀히 친가로 돌려 보내게 하였다. 장씨는 집에 들어박혀 있는 것이 예의이었겠는데 그렇지를 앎고 자기를 좋아하던 누구의 잦은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다.

새 王妃 閔씨는 전에 後宮이었던 장씨의 이러한 행동을 1681년에 알게 되었다. 민비는 예절에 어긋나는 이 일을 왕대비에게 알려 그녀를 다시 入宮시키도록 건의를 했으나 대비의 반대를 당했다. 대비가 1683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야 민비는 장씨를 다시 宮으로 불러들였다. 임금에게 천거하자 임금은 그녀를 다시 사랑했다. 왕비는 이내 후회하게 되었다. 과연 민비에 대한 후궁의 불순종이 어떻게나 심한지 왕비는 어느 날 그의 종아리를 치게 할 수 밖에 없을 지경이었다.

이런 사태를 심려한 왕비는 1686년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으며 민씨가 속해 있던 당파인 서인들의 제안을 지지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왕의 후계자가 없는 것이 불안하여 王에게 좋은 가문의 규수, 領議政 金壽恒<sup>10</sup>의 손녀 金씨를 천거했었다. 장씨에게 빠진 임금은 마지 못해 金씨의 入宮을 1686년 3월에 수락하였으나 총애하지는 않았다.

왕에게 生男해 드리라는 직책이 지워진 이 젊은 여인에 대한 왕의 이러한 무관심을 본 西人들은 몹시 분개하였다. 그들 중 여럿이 이 문제에 관하여 임금

<sup>9</sup>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63, 全49卷, 권 39, p. 85.

<sup>10</sup> 上同, p. 62.

에게 諫한 바가 實錄에 실려 있다. 1686년 4월에 李頤命,<sup>11</sup> 그 해 7월에 李徵明,<sup>12</sup> 9월에 金昌協,<sup>13</sup> 12월에 金萬吉이 諫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4</sup>

이 諫言들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김만중이 1687년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다.<sup>15</sup> 그는 왕이 장씨를 총애하는 데 대하여 떠도는 두가지 소문을 진언하였다. 첫째는 金昌協의 아버지 金壽恒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람이 領議政職을 삭탈당한 것은 장씨 및 그와 상종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한 그의 아들이 1686년 9월에 올린 疏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에 대하여 가진 불만을 어찌서 아버지에게 푸느냐고 김만중은 질문했다. 둘째 소문은 장씨의 어머니가 趙師錫의 집을 비밀히 찾아 갔었고, 趙가 右議政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은 그 때 장씨의 어머니와 맺은 약속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결국 요직에 임명함에 있어 미천한 여인의 농낙에 좌우받는 임금을 비난하는 셈이었다. 왕은 노하였으나 처음에는 이 소문들을 무시하는 체 하면서, 이런 풍문들의 출처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만중은 임금의 이 말을 출처를 밝히려는 왕명으로 오해하였던지 그는 거역하여 아뢰기를 "臣은 결코 그 출처를 사뢰지 않겠습니다. 죽기에 이르도록 고문을 당하는 한이 있드라도 臣은 泰然自若하겠습니다. 殿下께서 臣을 極刑으로 죽게 하신다 하드라도 臣의 말씀과 얼굴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sup>16</sup>라고 하였다.

이 도전적인 언사 때문에 김만중은 관직이 삭탈되고 고문을 당한 뒤 宣川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서인들은 김만중의 형이 죽은 사실과 따라서 그가 노모의 독자라는 점을 왕에게 지적하고 유배생활에서 풀어주기를 간청하였다. 이에 왕은 김만중의 지극한 효성을 인정하여 결국

---

<sup>11</sup> 上同, p. 67.

<sup>12</sup> 上同, p. 71.

<sup>13</sup> 上同, p. 76.

<sup>14</sup> 上同, p. 85.

<sup>15</sup> 上同, p. 108. <燃藜室記述>, 朝鮮古書刊行會, 권 9, 1912-1914,

<sup>16</sup> <朝鮮王朝實錄>, 上同, p. 109.

서인들의 뜻을 받아들였다.<sup>17</sup>

그러나 장씨 사건은 이제 國家大事의 중요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김만중이 서울에 돌아올 허가를 받은 1688년 11월에 장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왕은 1689년 正月에 이미 그를 元子로 定號하였다. 서인들이 항의를 하였다. 그들의 영수 宋時烈은 왕의 경솔을 비난하는 긴 疏章을 조정에 올렸다.<sup>18</sup> 소장에서 그는 23세 밖에 되지 않은 민비도왕조의 계승자를 낳아 주리라는 희망을 마땅히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그의 말에 찬동하지 않고 宋의 관직을 삭탈하고 濟州島로 유배시켰다가 얼마 안 있어 1689년 3월에 賜死를 하고 말았으며 많은 서인들이 그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 대신 반대 당파인 南人들이 다시 집권을 하였다. 이 宮中變革이 조선역사에는 己巳換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을 당했던 김만중은 1689년 윤 3월에 이르러 마침내 그가 2년 전에 왕에게 알렸던 풍문의 출처를 말하기로 하였다.<sup>19</sup> 이는 그의 주요한 연루자 李師命이 이미 처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金이 곱힐줄을 몰랐던 宋時烈의 심복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극형에 처할 것을 남인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노모에 대한 경의로 임금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유배형 중에서 가장 엄혹한 형태인 絶島 圍籬安置에 처하게 하였다.<sup>20</sup> 김만중은 반도의 남단에 있는 南海島로 보내졌다.

다음 달, 즉 1689년 4월에 왕은 정실 민비를 폐출하였다. 그 때 내세운 구실은 수태하지 못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은 후궁에 대하여 보여준 질투였다.<sup>21</sup> 임금은 서인에 속하는 선비 86명의 일단이 왕비를 위하여 올린 탄원을 여지없

<sup>17</sup> 上同, p. 135.

<sup>18</sup> 上同, pp. 154-155. <燃藜室記述>, 上同, 권 6, p. 303.

<sup>19</sup> <朝鮮王朝實錄>, 上同, pp. 166-167.

<sup>20</sup> 上同, p. 167.

<sup>21</sup> 上同, pp. 175-176, 185. <燃藜室記述>, 권 6, pp. 350-351.

이 물리치고 그것을 올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였다.<sup>22</sup> 폐출된 왕비는 1689년 5월 4일에 초라한 호위를 받으며 궁을 떠나 친가로 갔다.<sup>23</sup> 그후 1년이 지난 1690년 6월에 장씨의 아들이世子로 冊封되었고,<sup>24</sup> 10월에는 그의 상모 장씨가 왕비로 선포되었다.<sup>25</sup>

이 여인의 행운은 그의 가문이 속해 있던<sup>26</sup> 남인들의 운과 마찬가지로 오래 가지 못하였다. 右議政 閔黯은 1694년 4월에 밀고를 받아 민비의 복위를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음모의 주동인물은 당시 24세 밖에 안 되었던 김춘택이었는데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김만중의 종손이었다. 김춘택과 그의 공모자들은 체포되어 음모 사실 확증되었다.<sup>27</sup> 남인들은 그때 반노대과를 궤멸시켜버릴 기회라고 믿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반전으로 임금은 달리 결정을 내렸다. 왕은 피의자들을 석방시키고 그 대신 남인을 많이 체포시켰다.<sup>28</sup> 그 중에는 閔黯도 들어 있었으며 그는 나중에 처형되었다. 남인들은 이 타격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甲戌換局때까지 짧은 기간동안 맛보았던 권력을 단 한번도 다시 잡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때 민비는 궁으로 돌아와 달라는 왕의 청을 받아<sup>29</sup> 왕비의 지위에 복위하였다. 장씨는 세자의 생모라는 사실로, 민비가 당했던 것처럼 궁에서 쫓겨 나지는 않았다. 전략은 하였지만 그래도 왕비가 되기 전에 받았던 가장 높은 칭호를 다시 얻어 물려 앉았다.

서인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누구보다도 김춘택의 덕분이었지만, 그는 그의 공에 대한 보수를 결코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가 사용한 방법에 대하여 죽

---

<sup>22</sup> <朝鮮王朝實錄>, 上同, p. 177.

<sup>23</sup> 上同, p. 185.

<sup>24</sup> 上同, p. 223.

<sup>25</sup> 上同, p. 231.

<sup>26</sup> 이 여인은 張炫이라는 남인의 종손녀이었다. 上同 p. 85 참조.

<sup>27</sup> 上同, p. 294부터.

<sup>28</sup> 上同, p. 300.

<sup>29</sup> 上同, p. 301.



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가 속해 있던 당파 안에서까지도 비난을 받았다.<sup>30</sup> 춘택은 1694년에는 관대히 다루어졌으나 1697년에는 귀양을 가야 했다.<sup>31</sup> 또한 1701년,<sup>32</sup> 장씨가 巫蠱를 한 까닭으로 처형됨으로써<sup>33</sup> 복헌의 가문이 이끄는 서인의 강경파가 새로운 성공을 거둔 바로 그 무렵이었지만 김춘택은 다시 귀양 길에 나섰다. 심지어 1706년에는 세자인 장씨의 아들을 미워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그의 별이 가중되었다.<sup>34</sup> 濟州島로 유배되었다가 1710년에 감형의 은전을 입어 臨陂(全北任實郡)로 옮겨졌다.<sup>35</sup> 그는 1717년 47세의 나이로 죽었다. 종조부 김만중은 민비의 복위를 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는 55세의 나이로 배소에서 1692년 5월에 숨졌던 것이다. 실록에 의하면<sup>36</sup> 그는 그 전해에 벽세한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심끝에 죽었다고 한다.

위에 요약한 사실의 전개에서 우리가 <남정기>의 줄거리가 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남편 곁의 자리를 뺏긴 정실이 소박을 당하고 쫓겨난다. 다음, 첩에게 매혹된 남편이 처음에는 첩을 위하여 본처를 내보냈다가 아내를 다시 맞아 들인다. 끝으로,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으로 만족치 않고 정실의 자리를 뺏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첩이 있다. 비록 소설과 현실 양자간에 특수사정이 각각 다 부합하지는 않는다 해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에는 양편이 상황이 유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점을 인정할 때에 저자가 의식적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를 당연히 묻게 된다. 달리 말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정기>가 과연 소위 모델소설이나, 게다가 또 흔히 말하는

<sup>30</sup> 1694년 7월에 領議政 南九萬(西人)이 올린 疏(上同, pp. 336-337)와 <燃藜室記述>, (권 6, pp. 398-399) 요약된 同疏를 참조.

<sup>31</sup> <朝鮮王朝實錄>, 上同, p. 472.

<sup>32</sup> 上同, p. 660.

<sup>33</sup> 上同, p. 623.

<sup>34</sup> 上同, 권 40, p. 268.

<sup>35</sup> 金民澤著, <竹軒集>, 권 3, 장 20\_21 참조.

<sup>36</sup> <朝鮮王朝實錄>, 권 39, p. 265.

것처럼 정치적 풍자를 담은 작품이나 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김만중이 <남정기>를 지은 것은 비를 내보내고 그 대신 아들을 낳아 준 후궁을 들여앉힌 숙종의 태도를 풍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언한다. 이 문제를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어떤 학자들이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또 하나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기 위하여 朴晟義가 전하는 일화를 인용하자.

"어느 날 숙종은 궁인으로 하여금 이야기 책을 읽고 들으니 <사씨南征記>였다. 숙종도 무죄한 본실을 내쫓는데 가서는 유한림을 천하에 고약한 놈이라고까지 욕했다 한다. 그 후 숙종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휘빈을 내쫓고 민후를 복위케 하였으니 <사씨南征記>는 마침내 숙종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다."<sup>37</sup>

이 일화를 전하는 학자들 중에 그 출처를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순전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 이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일화의 전설적 성격을 비웃는 김현용씨에게<sup>38</sup> 丁奎福교수는 자기 생각에는 믿을 만한 것이라고 답변한다.<sup>39</sup> 金씨의 논문을 반박하면서 그는 이 전설이 김만중의 후계들 중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김만중의 十代孫인 金大中씨의 증언에 근거를 둔 이 전설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석을 붙이기도 한다. 金大中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西浦가 숙종께서 閔妃를 폐출하고 張禧嬪을 王妃로 맞아 들인데 대하여

<sup>37</sup> 朴晟義著, <한국古代소설史>, 1958, 재판 1964, p. 293, 金起動著 <李朝時代소설論>, 1959, p. 303 참조.

<sup>38</sup> 金鉉龍, 상계논문, p. 141.

<sup>39</sup> 丁奎福, 상계논문, p. 2.

풍자 내지 聖心을 悔悟키 위해<sup>40</sup> <南征記>를 국문으로 지어 그의 후손 北軒 김 춘택을 시켜 宮中에 퍼뜨리라 하였다. 北軒이 <南征記>를 읽어보고 그대로 퍼뜨렸다간 더욱 大變을 당할 것을 생각하여 北軒이 이를 漢譯하여 저자를 중국인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신을 시켜 중국에서 출판하여<sup>41</sup> 국내로 가져오게 한 후에 <南征記>를 궁중에 퍼뜨렸다 한다. 하루는 숙종께서 궁정을 산책하다가 궁녀가 <南征記>를 읽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가 자기의 민비폐출 처사와 흡사한 지라 그 소설의 출처를 알아봤더니 그 원본이 중국소걸임을 알고 일이 무사했다 한다."

丁교수가 전하는 이 일화의 형식은 朴晟義교수, 金起東교수 그 밖의 분들의 그것에 비하여 후퇴한 것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丁교수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소설을 읽는 것이 숙종의 마음을 돌린 근원이었을 것이라는 말은 없고 반면 거기에는 전에 없던 후손이 말은 사명과 중국인의 소작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꾸민 계략 등의 새로운 점이 덧붙여져 있다. 어쨌든 전기 형식의 익화나 마찬가지로 丁교수가 전하는 홍식의 진식성도 확인할 수 없다.<sup>42</sup>

이와 반대로 이 소설이 숙종의 행동을 풍자하기 위하여 쓰였을 것이라고 하는 첫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이규경의 증언을 내세운다. 이규경은 <남정기>의 저자를 김춘택으로 본 그 학자라는 것도 위에서 말한 바 있다. 소설은 다룬 章에서 그는 중국에서 들어온 소설들에 언짢하고 자기 동포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 뒤에 이규경은 아래와 같이 말한

<sup>40</sup> 이 국문 문구는 李圭景이 漢文으로 썼던 것(성계, <五洲衍文長箋散稿>, 권 7)을 거의 글자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오직 풍자한다는 말만이 李圭景이 사용치 않았던 용어다.

<sup>41</sup> 金大中氏는 出版한다는 용어를 쓰지만 실은 오늘날까지 전승해온 <南征記>의 漢文本은 모두 필사본들이다. 중국에는 <中國綜書彙錄>(全3卷, 上海, 1962년刊, 권 2, p. 319)에 의하면 <南征記>라는 제목으로 淸朝時代에 出版된 책이 하나 있기는 있으나 그것은 <金陵記略>이라는 책의 부록에 지나지 않는다.

<sup>42</sup> 金大中氏의 말에 <北軒集> 소개 (권 16) <南征記>에 관한 雜說과 합치치 않는 점이 있다. 즉 北軒은 이 소설을 서울에서 漢譯한 것이 아니라 적소에서 했다고 언명한다. 번역의 동기도 역시 金大中氏의 말과는 달리 국문으로 쓴 從祖父가 諸子 측에 끼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다.

"閔卷間流行者, 兄有九雲夢西浦金萬重撰, 稍有意義南征記北軒 김춘택所著. 世傳西浦竄荒時爲大부인銷愁一夜製之. 北軒則爲肅廟仁顯王后閔씨巽位欲悟聖心, 而製者云."<sup>43</sup>

어디서나 인용되는 이 글이 <남정기>의 저작과 민비의 폐출과 관련을 맺어주는 유일한 문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때늦은 글이다. 이규경은 1788년에 출생했는데 사망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여러가지 짧은 글과 수필들을 <五洲衍文長箋散稿>라는 제목을 붙인 책에 모아놓은 것은 1839년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들 한다.<sup>44</sup> 김만중이 죽은 뒤 근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한편 이규경은 <남정기>의 저자의 신원을 잘못 알고 있다. 반면 그 앞줄에서 <九雲夢>에 언급할 때에는 50년후에 모리스 꾸랑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만중을 재능이 있는 소설가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만큼 <남정기>의 저자만을 오인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현대에는 김춘택 자신의 증언을 알게 됨에 따라서 참된 저자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김춘택이 가졌었다고 한 그 의도를 김만중이 가졌던 것으로 여긴다.<sup>45</sup>

오늘날의 학자들의 설은 비록 널리 공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외적 고증의 아무 증거도 내세우지 못한 것이다. 이규경의 말에 의거하여 김만중이 왕을 풍간하고자 한 의도를 품어서 <남정기>를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규경이 국문으로 된 원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

<sup>43</sup> 李圭景, 상계서, 上同.

<sup>44</sup> <한국의名著>, 1970, p. 1007 參照.

<sup>45</sup> 金台俊, 상계서, pp. 111-112.

도 언급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문의 우월성에 젖어버린 유생은 다만 언문으로 된 글은 언급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또 어찌면 그로서 볼 때에는 여하튼간에 왕의 마음을 돌려 드리기 위하여 <남정기>를 이용한 사람은 김만중이 아니라 김춘택이었는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김현용씨가 강조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sup>46</sup> 역자는 자기의 종조부 이상으로 소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김춘택의 술책으로 말미암아 1694년에 권력을 회복한 서인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金이 지하활동을 하는 중에 서슴지 않고 썼던 방법, 즉 여인들을 통한 간계와 공범을 매수하기 위한 모금 등을 비난하였다.<sup>47</sup> 그가 속해 있는 당파의 몇몇 인사는 그를 고발하기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었다.<sup>48</sup> 당초 1694년에는 무사하였으나 그 때의 음모에서 기인하는 죄목들 때문에 1697년과 1701년에 두번에 걸쳐 유배형을 당하게 되었다.<sup>49</sup> 그의 벌이 1706년에 가중된 것도 장씨 아들인 세자를 해하려고 했다는 같은 폐기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인한 것이었다.<sup>50</sup> 민비 사건에 관한 싸움에 그만큼 관여한 사람은 당시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게 그것이 일생의 대사였다. 그러므로 <남정기>는 자기가 도모하던 목적의 정당성을 보여줌으로써 왕비 복위 이후에도 그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이었다. 이런 사길로 미루어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규경의 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김춘택이 甲戌換局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나 <남정기>를 이용하여 성심을 밝혀드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저자 김만중으로 말하면, 이 증언에 의거해서 그도 같은 의도를 가졌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p>46</sup> 상계 논문, pp. 140-141.

<sup>47</sup> 위의 <註 31> 參照.

<sup>48</sup> 상계 <朝鮮王朝實錄>, 권 39, p. 324.

<sup>49</sup> 上同, pp. 472, 660.

<sup>50</sup> 上同, 권 40, p. 268.

그러나 이규경은 김춘택에 관해서도 매우 때늦은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도 "世傳" 즉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그 구전에 의거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필자는 파리 소장 한문 필사본에서 이 설이 이규경위해 기록되기 약 1 세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표징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일권 첫장에 있는 誤寫이다. 사씨의 남편이 될 劉廷壽의 아버지 劉熙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문판(I-1a)과 靑柳版(1면)에는 그가 明나라 皇帝 世宗(1522-1567)의 신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파리의 필사본(I-1a)에는 이 황제의 이름 대신 숙종이라는 廟號가 적혀 있다. 명조에는 이 묘호를 받은 황제가 없으니 그것은 사자생의 오사임에 틀림없다. 숙종 사후 34년만에 이 소설의 첫장을 베끼고 있던 사자생의 이러한 실수는 그가 작품의 내용과 그 임금을 광연시키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표징은 연대가 이른 것으로 인하여 귀중하다. 연기에 의하면 이 파리 소장 한문본은 1754년에 베낀 것이므로 그 때 즉 이규경의 기록보다 백여년전, 관련된 인물들의 사망 후 불과 일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1754년에 이미 <남정기>를 그 임금에 대한 풍간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다.

객관적 고증은 수궁할 만한 확실도로 김춘택이 <남정기>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의거하여 그 보다 한결음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만중도 풍간의 의도를 품어 집필을 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본문의 고증이다. 소설의 내용은 김만중이 사씨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왕을 풍간하고자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하여 김현용씨의 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작품의 전반부에서 까지도 숙종의 결혼 생활과의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시인하면서도 합치하지 않는 점들을 지적한다.<sup>51</sup> 민비는 끝까지 수태를 하지 못 한데 반하여 사씨는 아들

---

<sup>51</sup> 상계논문, p. 142.

을 만산한다. 구리고 김만중은 장씨의 아들의 元子 定號를 반대하다가 극형을 간신히 면하여 처벌된 서인의 무리중에 섞여 유배갔다. 만일 그가 원자 정호를 비판할 뜻을 가졌더라면 교씨의 아들을 劉씨의 대를 잇는 翰林의 장자로 하지 않았겠는가?

김현용씨가 지적하는 바는 적절하다. 당시 현실과의 유사성은 있어도 부분적이고 목과해서는 안 될 차이점도 꽤 있다. 그렇지만 劉씨의 집안 사정과 김만중의 관직 생활 말기에 숙종의 그것 사이에는 유사점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자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결국 이런 유사점에도 있는 것이다. 이규경의 증언을 통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오직 반대편의 김현용씨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구실이 될 뿐이다.

실은 통설의 근거는 이규경의 말에 있기보다는 김만중의 소결과 민비 사건과의 바로 그 유사성을 토대로 하는 견고한 추론에 있는 것이다. 金台俊의 설에 좌단하는 이들이 잘 보는 바와 같이 <남정기>와 당시 현실 사이의 유사성은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반대편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현용씨가 하는 것처럼 왕을 풍간할 의도를 역자만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치에 어긋난는 말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저자만이 사씨 이야기와 자기가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사건들 사이의 그 유사성을 알아채지 못 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오늘날의 통설을 시인하여 이규경이 역자인 김춘택에게만 관련시킨 풍간의 의도를 저자인 김만중에게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치에 맞는 자명한 결론이다. 숙종을 비판하려고 한 자는 과연 저자인 김만중이기는 하다. 그는 왕이 처해 있던 비슷한 처지를 상상하고, 왕과 같이 행동하는 유한림이라는 한 인물을 작중에 등장시킴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

-----

김만중은 대강 그려놓은 이런 비유로 만족하였는가? 이런 재능이 있는 작가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작품 군데군데에 정묘한 암시를 곁들이고 비교를 더 으스스한 구석까지 몰고 가거나 더 치밀하게 구상된 문학적 수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남정기>의 정치적 성격을 내세우려면 우선 이 작품내에 논쟁적인 특질을 구명할 과제를 피할 수 없다.

당시 현실이 연상되는 점들은 흔히 말하는 것보다도 <남정기>에 많고 또 정밀하다. 우선 주인공과 민비 사이에 우연일 수 없는 점을 지적하자면 두 여인이 다 남편에게 첩을 얻어 그들이 낳아 주지 못한 자식을 얻도록 하라고 청한 일이 있다. 두 사감이 다 이 고결하고 무사한 발의로 장차 자기들의 자리를 뺏게 될 자를 집에 불러 들인 것이다. 장씨가 두번째 입궁하는데 대하여 실록에 있는 이야기를 앞서 상기시킨 바 있다. 교씨가 劉씨 가정에 들어가는 일을 둘러싼 과정은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나 작품에 있어서도 부인의 개입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민비의 여량력이 없었더라면 장씨는 결코 다시 입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금은 그녀를 잊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사씨도 처녀 하나를 구해 소개하니 한림은 더 검토도 하지 않고 받아 들인다. 그리고 왕모 明聖王后의 단호한 반대에 대하여 작품중에서 한림의 고모 杜씨의 그에 못지 않은 반대가 짝을 이룬다.<sup>52</sup>

한편 한림의 잘못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자가 그의 어림과 미숙함을 강조한 것은 분명히 숙종을 겨누는 화살이다. 黃陵에서 사씨에게 나타난 娥皇의 말도 그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사씨의 재난에 대한 하늘의 판단, 따라서 저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

<sup>52</sup> <影印古소설板刻本全集>, 권 5, 金東旭 編, 1973-1975年, 권 4, p. 277, 上左下右.



"오즉불행하여너모조달하니천하사를모를거시업스나살피지못하는일이만  
흔고로하늘이일시재화를나리와경계를하랴하시니라."<sup>53</sup>

과연 유연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곧 翰林院 編修로 임명되었을 때 15세에 불과한 나이였다. 그는 얼마후 결혼한다. 그의 아버지는 5년후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미숙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며 누이 두씨에게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든 나무라라고 부탁한다. 아기를 낳지 못한채 결혼생활을 10년동안 한 뒤에 한림은 부인이 요청하는 데 못 이겨 그가 소개하는 첩을 받아들인다. 같은 해에 교씨는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숙종은 어떤가? 그는 1661년에 태어나 1674년 부왕이 승하하자 옥좌에 올랐다. 그 때 그의 나이는 15세였다. 그것은 유연수가 한림으로 뽑혀 황제에게 10년 동안의 휴직을 청했을 때의 나이기도 하였다.<sup>54</sup> 여기에는 너무 일찍 국권을 받은 왕을 겨누는 화살이 있지 않은가? 숙종이 서인들의 간청에 못이겨 마지못해 받아들인 후궁 김씨를 소홀히 하였을 때 장씨에 대한 왕의 정열이 정권을 잡고 있던 당파 사람들에게 정치적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686년부터였다. 왕은 그 때 한림이 교씨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때의 나이와 같았다. 양인이 첩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도 똑같은 25세였다. 한림의 미숙에 대한 선녀 아황의 언명은 숙종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漢成帝의 후궁 班婕妤의 모습을 <남정기>에서 상기하는 것도 당시 조선 왕에 관계되는 암시이다. 皇陵廟에 나타난 선녀앞에서 사씨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할 때에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고 하늘을 몹시 원망했다. 네 烈女의 예를 들며

---

<sup>53</sup> 上同, p. 277, 上左.

<sup>54</sup> 上同, p. 274, 上左.

그 중 한 사람인 班씨의 경우에 대하여 더 길게 늘어 놓는다.<sup>55</sup> 그는 <漢書><sup>56</sup>와 劉向의 <列女傳><sup>57</sup>의 독자들이 익히 아는 사실 즉 황제에게 대한 봉사에 있어서의 정성과 예절에 대한 마음씀, 경쟁자에 의한 축출, 새 후궁 趙씨 등을 상시시킨다. 사씨와 마찬가지로 班婕妤도 방자를 했다는 참조를 당했다. 그 무함은 그 趙飛燕과 趙昭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의 동생, 즉 劉向이 다음 장에 이야기를 기술한 두 자매에게서 온 것이었다. 저자가 班婕妤를 사씨라는 인물의 모델로 사용했다면 교씨라는 사람은 趙飛燕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成帝의 후궁과 마찬가지로 그는 유혹의 수단으로 가무를 쓴다.<sup>58</sup> 교씨는 그의 덕있는 경쟁자가 巫蠱를 했다고 무고함으로써 그를 제거한다. 그는 또 영아살해도 서슴치 않는다. 아마 그의 두 정부가 차례로 죽은 뒤 창녀가 되어 成帝의 후궁의 趙라는 성씨를 가명으로 쓴 것도<sup>59</sup> 우연이 아닐 것이다.

사씨와 班씨를 또 교씨와 趙씨자매와 비긴 것은 작가 측에서 비유를 계속하여 유한림과 成帝를 비교하라고 종용한 것인 것 같다. 여기에 이르러 실제로 누구를 조준하는지를 짐작하지 못할 자는 조선 조정애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과연 서인의 한 사람은 숙종이 장씨에게만 몰두한다고 비난하며 經筵하는 자리에서 공연하게 숙종을 漢成帝에 비교한 앞서 상기시킨 간언이 있다.<sup>60</sup> 서인들이 추천한 김씨가 입궁한지 일개월만인 1686년 4월의 일이었다. 이름을 李顛命이라 하고 당시 侍讀官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 서인은 成帝에 관한 <漢書><sup>61</sup>를 아

<sup>55</sup> 靑柳, 상계 <原文和譯對照 謝氏南征記九雲夢>, p. 93. 木版本 (상계 <影印古소설板刻本全集> 권 4, p. 293, 上左)에는 謝氏의 말이 짧고 고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문본에는 謝氏가 고사에 의거하여 복선화음을 부정하는 말이 있고 娥皇이 부인의 이의를 반박하는 말도 있다. 국문 목판본에 娥皇의 답편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로 미루어 고사에 대한 謝氏의 말은 원래 국문에도 있었다가 중간에 누락된 것이 확실하다.

<sup>56</sup> <漢書>, 권 97.

<sup>57</sup> <列女傳>, 권 8, 14.

<sup>58</sup> 상계, <影印古소설板刻本全集>, 권 4, p. 278 下左~279 下右.

<sup>59</sup> 上同, p. 305 上左.

<sup>60</sup> 상계, p. 192 參照.

<sup>61</sup> <漢書>, 권 10, 97.

래와 같이 해설하였다.

"成帝不能令終以色亡身，如此之事匪敢致慮於聖明。而當如無若丹朱傲之義<sup>62</sup>常存警戒焉。時上新選淑儀金氏，又有內寵張氏。故筵臣此諷諫以色之戒。"

이렇게 공공연히 숙종의 여인관계를 成帝의 그것과 비교한 사람이 <남정기>의 저자와 가까운 친척, 즉 李頤命이 김만중의 친사위였던 사실은 흥미스러운 일이다.<sup>63</sup> 작가는 사위가 몇 년 전에 간언한 내용을 잊어버렸을리 만무하다.

또한 김만중의 소설을 서인들이 장씨에 관하여 왕에게 올린 上疏와 다른 모양으로 관련시킬 수도 있다. 필자는 李頤命의 간언 이후에 1686년 7월에 李徵明이 간언을 했다는 것을 상술한 바 있다. 그는 장씨의 어머니의 거리낌 없이 줄곧 딸을 찾아 궁내에 출입하는 것을 항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疏를 끝맺는다. "自古國家之亂皆由於女寵。女寵之禍多於此等人."<sup>64</sup>

李徵明은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sup>65</sup> 그러나 서인이며 領議政 金壽恒의 아들인 金昌協이 동년 9월에 임금에게 올린 소장에서 동일한 책망을 한다.<sup>66</sup> 그는 특히 이런 말을 썼다. "非外人所敢知，而閭巷之間傳說漫漫。皆以爲宮中實有實有共人，而殿下諱之。" 아들의 이런 간서 때문이었다고들 말하던 金壽恒의 관직삭탈은 <남정기>의 저자가 그로부터 1년후인 1689년 9월에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간언에서 언급한 두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sup>67</sup>

김만중은 이 간언에서 또한 궁안팎의 끊임없는 출입에 대하여 다시금 왕의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趙師錫의 승진이 장씨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고 사람들이 운운불평하는 일을 이렇게 임금에게 알려 드린 것이다. 그의 간언의 이

---

<sup>62</sup> <書經>, 권 2.

<sup>63</sup> <西浦集西浦漫筆>, 影印本, 1970, <先妣貞敬夫人行狀>, p. 370 (集).

<sup>64</sup> 성계 <朝鮮王朝實錄>, 권 39, p. 71.

<sup>65</sup> 上同.

<sup>66</sup> 上同, p. 77.

<sup>67</sup> 上同, pp. 108-109.

러한 사항들은 실록의 기사가 앞서 붙인 해설로 밝혀진다.<sup>68</sup> 즉 장씨의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趙씨 태에서 전에 고용살이를 했는데 그 때에 趙師錫과 사통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록에는 김만중이 임금에게 올린 간언의 내용을 적기 전에 이야기를 적어 또 하나의 인물 즉 왕족이며 趙師錫의 종형제인 東平君 李杭이라는 사람을 관련시킨다. 실록에 쓰인 것을 보면,<sup>69</sup> 장씨의 처소에 무상출입하는 이 왕족의 행동을 김만중은 義禁府 判事의 자격으로 검사한 일이 있었다. 이 왕족이 장씨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최악의 추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왕족은 장씨가 궁 밖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민비의 빈축을 샀던, 바로 그 申씨의 아들이었다. 끝으로 실록에는 趙師錫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의 고모인 조대비가 그에게 무상출입을 허락하여 그를 통해서 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정을 보고 받았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다. 그러니까 궁내에서는 장씨와 조대비, 한편 외부에서 드나드는 趙師錫, 장씨의 어머니, 東平君이 한 통속이 되었던 것이다.

김만중은 經筵에서 이렇게 음모가 횡행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고, 다만 趙師錫의 임관에 관한 풍문을 임금에게 직접 보고했을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 앞서 그는 온 사태를 한 글귀, 즉 1686년 9월에 李徵明이 한 것과 거의 같은 말로 요약하였으니,<sup>70</sup> "自古流言多出於內有女寵."이라고 하였다.

서인들과 김만중의 이러한 간언에 비하여 비슷하게 표현되어 상응하는 것 같은 말을 <남정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줄거리의 중요한 곡절에 삽입된 서운한 탄식이다. 첩의 아들이 난 뒤에 사씨도 생남한 때다. 첩 교씨는 위협감을 느껴 무녀에게 문의하니 무녀는 한림의 마음을 매혹하기 위한 마술적 비결을 알려주고 사씨를 쫓아내는 방법도 넌지시 가르쳐 준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sup>68</sup> 上同, p. 104.

<sup>69</sup> 上同, p. 108.

<sup>70</sup> 上同, p. 71.

위하여 교씨는 서생 동청에게 도움을 청한다. 교씨는 비녀 랍매를 통하여 서생과 연락을 취하는데 비녀에게는 동청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앞서 명한 바 있었다. 이번에 교씨가 랍매를 통하여 동청에게 청하는 일은 사씨의 필적을 모방하여 사씨가 저주문을 쓴 것처럼 꾸며 달라는 것이다. 동청은 수락하나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교씨 자신이다. 이런 에피소드로 유씨 집안에는 안방과 외부 즉 남자 세계와 연락이 지어진다. 저자는 코멘트를 넣어 이것을 탄식한다.

"古之聖人制禮作法. 內言不出於外. 外言不入於內. 修身而齊家. 出淫而遠邪. 皆所以防微杜漸之道也. 今유한림內嬖奸邪之賸, 外有不正之客."<sup>71</sup>

위의 인용문에서 부정된 부분은 집안을 다스리는 규칙을 다룬 <禮記>에서 따온 것이다.<sup>72</sup> 李徵明이 왕에게 올린 말과,<sup>73</sup> 김만중이 그 후년에 다시 올린 말들은 이규칙에 근거를 둔 것이며, 서인들의 말을 따르면 장씨의 처소를 둘러싸고 눈에 띄는 그 출입은 이것을 크게 여기는 것이었다. 당시 노련한 독자는 이런 비난을 서인들이 조정에 간한 바와 관련짓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서 비난을 받는 양측의 행동간의 상사함도 간과될 수 없다. 서인들이 그렇게도 신랄히 비판한 궁내와 외부와의 온당치 않은 출입은 예의를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종대한 것은 궁외 사람들에게 장씨와 더불어 민비의 파멸을 꾸밀 기회를 준 일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작중 상황 속에서도 외부 즉 동청과의 접착이 교씨로 하여금 교묘한 범죄를 구상하게 하였으니, 교씨 스스로는 그런 범죄를 결코 생각해내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저지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유한림이 범한 경술 즉 첩을 고르는 일을 남에게 맡긴 그 경술이 유씨 가문의 멸

<sup>71</sup> 상계 <原文和譯對照版>, p. 35. 국문 판각본 (상계 全集, 권 4, p. 380 下左)에는 문장이 요약되어 서인들의 간언들과의 유사점이 뭉뚱하니 나타나 있지 않다.

<sup>72</sup> <禮記>, 권 8.

<sup>73</sup> 상계 <朝鮮王朝實錄>, 권 39, p. 71.

망을 가져온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의 첫째 잘못이었다. 둘째는 한림이 처첩간에 공평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교씨와 화근이 된 동청과의 관계가 사슬의 셋째고리가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서인들이 조정의 문란을 추구하면서 그 근원에 대하여 내린 진단을 그대로 되찾아보게 된다. 즉 후궁의 인격, 그에 대한 왕의 편애, 또 규방과 외부사이의 비정상적인 연락 따위였다.

김만중은 이 비유를 한층 더 강조한 것 같기도 하다. 그가 왕에게 올린 간언을 실록에 적혀 있기 앞에 장씨가 東平君과 수상하게 친숙했다는 사관의 몇마디 들어 있다. 작중 인물 가운데는 그 이와 비교가 되는 사람은 교씨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동청이 아니겠는가? 동청이라는 이름은 음으로 보아서 이 왕족 李杭이 가진 동평이라는 칭호와 비슷하다. 이런 방향으로 주의가 환기되고 보면, 주인이 모르게 첩과 부정한 관계를 위시하여 비교를 밀고 나갈 만한 점들을 쉽사리 발견하게 된다. 실록에는 東平君의 경우 이 관계가 간통에까지 이르렀으리라고 암시되어 있다. 김만중은 임금 앞에 이런 고발을 삼가했으나<sup>74</sup> 작중 동청은 교씨의 정부로 만들었다. 김만중 사망 9년 뒤에, 장씨가 巫蠱를 한 죄로 처형된 지 얼마 안되어 東平君도 장씨와 더불어 민비의 파멸을 공모하였다는 죄목으로 賜死되었다.<sup>75</sup> 그의 단죄의 이유는 작중 사씨의 축출에 있어서 동청이 했다고 한 바로 그 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씨가 처음 동청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무슨 이유이었는지 주의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동청이 남의 필적을 모방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이었다.<sup>76</sup> 그런데 東平君도 그런 재주를 가졌었던 것 같다. 이것은 김만중과 가까운 사람인 李師命이 1689년 신문을 당할 때에 말한 것이다. 東平君이 숙종에게 바친 바 있는 선조의 친필이란 것이 위서였다는 것이

<sup>74</sup> 장씨와 東平君과의 부정한 관계는 그 이듬해 朴世采라는 西人에 의하여 肅宗에게 고발된 것이다. (上同, pp. 128-129, 및 상계 <燃藜室記述>, 권 6, p. 295).

<sup>75</sup> 상계 <朝鮮王朝實錄>, 권 39, p. 648.

<sup>76</sup> 상계 全集, 권 4, p. 280.

었다.<sup>77</sup> 따라서 사씨와 민비, 한림과 임금, 교씨와 장씨 사이의 이 세 가지 상사 관계에는 또 하나를, 즉 동청과 東平君이 유사하다는 것을 덧붙여야 해야 한 것이다.

이러고 보니 <남정기>에서 임금을 풍간한 내용은 결국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숙종왕이 처해 있던 여자 관계와 대강 비슷한 일반적인 상황이 작품에서 설정되었음에 그치지 않았다. 재치있는 암시, 불리한 비교, 은근한 비평 따위가 작품에 군데군데 곁들여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혀 놓은 이 점들은 모두 예외없이 작품의 전반부에 들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즉 숙종의 조정과 유사성이 있는 것들은 첩을 집안에 들임으로 인하여 유씨 가정에 생긴 사태에서 끌려온 일들이다. 후반부는, 즉 사씨가 중국 남방에서 겪은 재난을 서술하는 부분은 민비가 당한 모욕과 관계가 없는 것같이 보인다. 작가는 후반부에 이르러 전반부를 쓰면서 품었던 의도를 잊어 버렸던 것인가? 작품은 후반부에 와서 순전한 모험 소설로 변한 것인가?

사씨가 중국 남방에서 겪은 일이 작품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김현용씨가 보기에 <남정기>가 풍간소설이라는 통설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주로 전반부만을 가지고 숙종의 폐비사건과 결부시켜 목적소설이요 풍자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을 통해 보면 완전히 무너져서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78</sup> 金씨의 글에 대한 반박에서 丁奎福교수도<sup>79</sup> 후반부는 민비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을 양보했다. 정 그렇다면 제목에 대해 문제가 난다. 남정 두 글자가 남방에서의 모험쪽으로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sup>77</sup> 상계 <朝鮮王朝實錄>, 권 39, p. 166.

<sup>78</sup> 金鉉龍, 상계 논문, p. 143.

<sup>79</sup> 丁奎福, 상계 논문, p. 5.

-----

사씨가 배를 타고 향해 가는 남방은 湖南省 湘江가에 있는 長沙라는 도시이었다. 길손들이 岳陽樓 아랫쪽을 지나 洞庭湖로 들어갈 때 작가는 그 지점에 예전에 楚나라 남쪽 국경을 이루던 곳임을 지적한다.<sup>80</sup> 또 그 넘어는 舜帝가 세상을 떠난 蒼梧野도 있고 그가 묻힌 蒼梧山이라고도 하고 九疑山이라고도 하는 명산도 있는 湖南省 南端의 지방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북방에서 오는 여행자가 그의 무덤으로 가려면 호수를 건너가 湘江물을 남쪽으로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舜의 두 부인 娥皇과 女英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湘江이 호수를 흘러 들어가는 어귀에서 익사했다는 것을 작가는 회상시킨다.<sup>81</sup> 두 부인은 강의 동쪽 기슭 黃陵이라는 곳에 묻혔다. 그들을 모신 묘와 岳陽樓 사이로는 동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또 다른 강이 하나 호수로 유입한다. 그것은 기원전 3세기에 시인 屈原도 익사했다고 司馬遷이 <史記><sup>82</sup>에서 기록하는 汨羅江이다.

사씨가 강에 몸을 던지면서 屈原의 본을 따른다고 말한다. 湘江 어귀를 향해 호수를 배로 지나가던 중 남편의 고모 두씨가 이미 長沙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었다. 그러면 長沙로 갈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사씨는 사공에게 자기를 상륙시켜 달라고 일렀었다. 사씨, 유모, 비녀, 이렇게 세 여인이 닿은 湖水 東岸의 지점은 司馬遷에 의하면 시인 屈原이 자결한 곳인 懷沙의 근처였다.

의지할 곳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씨는 자살하려고 한다. 나중에 娥皇에게 그 때의 자기의 격심을 설명하려고 사씨는 屈原이 말했다고 司馬遷이 전하는 구

---

<sup>80</sup> 상계 全集, 권 1, p. 412 上右.

<sup>81</sup> 上同.

<sup>82</sup> <史記>, 권 84.



절과 같은 말들을 빌어서 이렇게 말한다. "일신을강어의장하려……" (했다).<sup>83</sup> 그랬더니 娥皇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굴원의자취를 巫르고저하나니난천의아니오".<sup>84</sup> 娥皇은 또한 사씨에게 그가 자결을 하려고 시도하기에 앞서 부르짖은 말을 상기시킨다. "창천이엇지날을이의니르게하스나니잇가. 고인의이른바어진 사람의게난하날이복을나리시고죄잇난사람의게난죄를쥬신다하더니진실로허언이로다".<sup>85</sup> 선녀는 사씨의 이 한식을 屈原의 시집 제목 <天問>에 비교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굴원을효측하여하날을뭇고저하니하날이임의초를떨하시고……(생략)".<sup>86</sup>

楚나라 서율은 기원전 278년에 秦나라 군사들에 의하여 파괴되었는데 屈原의 진언을 무시한 楚왕의 탓이었다고 司馬遷은 기록하였다. 견딜 수 없이 실망하여 屈原은 남쪽을 향해 출발하여 이 곳에서 자살했던 것이다. 남쪽으로 떠난다는 것은 이미 그의 걸작으로 남아 있는 <離騷>라는 시의 주제이었는데, 이것은 楚왕의 조정에서 첫번째로 실총했을 때 지은 것이었다. 거기서 그는 자기를 버림 받은 애인에 비교하여 신령과의 포옹을 찾아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던 옛날의 그 巫者의 뒤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다. 멀리 重華가 있는 남방으로 가서 그에게 하소연하고 싶다고 뜻을 표한다. 重華는 바로 현군 舜帝인데 사씨에게 발원한 두 선녀는 그의 부인들이다. 전통에 의하면 舜이 堯帝를 계승하게 된 이유는 양부인과 화목하게 살면서 유한림에게서는 흐려지게 되었던 바로 그 충명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7</sup> 그런데 屈原은 舜의 녀이 살고 있는 그 남방을 향해 떠나는 것을 가리킴에 있어 "南征"이라는 두 자를 사용했는데<sup>88</sup> 김만중 소설

<sup>83</sup> 상계 全集, 권 1, p. 413.

<sup>84</sup> 上同, 권 4, p. 293 上右.

<sup>85</sup> 上同,

<sup>86</sup> 上同,

<sup>87</sup> 上同, p. 297 下左. 그리고 宋朝 周敦頤著, <通書>, 32도 參照.

<sup>88</sup> <離騷>: "濟沅湘以南征兮, 就重華而陳文詞". 注釋者 王逸은 여기서도 征字가 간다는 뜻만을 갖고 있다는 注를 달 필요를 느꼈다. 征字는 보통으로는 周昭王이 같은 江南에 가다

의 제목으로 들어 있는 같은 두 글자들이다.

그 의미는 사씨가 屈原과 유사한 사실에 독자의 주목을 끌어주는 데에 있는 것이 물론이다. 양인이 무고를 당해 이 곳에 왔고 또 이 자리에서 물에 투신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屈原은 舜帝겉으로 가는 길이었다. 舜帝의 부인들은 사씨를 심연 위의 낭떨어지에서 붙잡아 주며 하늘은 그가 시인의 뒤를 끝까지 쫓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명했다. 처에 대한 무고를 들어준 남편이 언젠가는 잠시 잃은 총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양부인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 저자가 시인과 사씨를 대비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屈原과 사씨와의 비교가 민비에게 적용될 때에는 왕비의 올바름이 돋보이며 한편 저자가 임금의 총명에 대해 간직한 신뢰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 기이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중국 고대사에는 질투와 무함에 희생되어 불운한 부인의 고사가 많은데 저자는 어찌하여 사씨를 이러한 여성들에 견주지 않고 남자인 屈原과 대비하였을까 하고 또 이런 대비를 왜 그다지 중요시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초왕에게 실총한 시인이 자기를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버림받은 아내와 비유한 <離騷>의 여러 글귀에 들어 있다. 축출된 신하와 소박맞은 여인이라는 이 두 모습이 그 글귀 속에서 짐짓 애매한 가운데 섞여 있다. 버림받은 여인의 우의(allegory)는 중국에서 屈原 이후로 공사에 있어서 불행했던 시인들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었다. 또 그것이 어찌면 본래 단순한 애정시에 불과한 것에 대해 주성자들이 이런 해석을 과민하게 말한 경두도 더 혼한

---

溺死했다는 일을 記述한 <左傳>, 권 5, 四년의 귀절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軍의 違征을 의미한다. 이보다 앞서 <易經> 下升에 "升元亨, 用見大人, 勿恤, 南征吉"이라고 하는 말이 실려 있다. 南征이라는 두 字는 과연 여러가지를 연상시키는 말인듯 하다. 揚子江 남부에서의 昭王과 屈原의 역사와 같은 흥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동일한 신비스러운 지방에서 지도와 위안을 해줄 대인을 만난다는 길한 일도 연상시킨다. 屈原과 같이 투신자살하려고 했던 사씨에게는 屈原이 옛적에 찾으러 갔던 舜帝의 두 부인을 만난 닥으로 南征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은 결국 길사가 되고 말았다.

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이 우의를 채용한 것이 동인들의 곡격을 받아 1585년 선조의 조정에서 추방을 당한 시인 松江 鄭澈이었다. 그는 적소에서 思美人曲과 續美人曲<sup>89</sup>이라는 2 편의 가사를 국문으로 지었는데 그것은 楚辭에서 구상을 얻은 것이며, 한편 그 제목도 九章의 시 한 편을 회상시킨다. 송강은 버림받아 애인을 사모하는 여인의 우의를 屈原에게서 따왔다. 이 우의를 군데군데 밖에는 상용하지 않는 중국 시인보다도 한층 더하여 그는 줄곧 시종일관하게 이 우의를 끌고 나간다. 이 전후 思美人曲과 關東別曲, 이 3 편의 가사에 대하여 김만중이 左海의 유일한 眞文章이라고 쓴 글<sup>90</sup>은 유명하다. 그런데 당시 이른바 언문으로 지은 이 가사들을 감히 중국문학의 한 걸작품인 <離騷>에 감히 비교했건던 그는 이 같은 <離騷>에서 자기 소설의 제목을 빌어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 사씨와 <離騷>의 저자와의 유사점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명시함으로써 김만중은 자기 소설에 대해서도 같은 우의적 해석을 은근히 권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시에 등장한 여인들처럼 사씨도 무함을 받고 쫓겨났다. 실층한 과거의 많은 정치가들과 같이 정철은 자신을 屈原의 고귀한 인물에 비교했다. 마찬가지로 김만중이 보기에는 자기의 처지도 두 시인의 처지와 다름이 없었다. 그의 유배도 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솔직한 말씨와 정직 때문이었다. 그의 두 선배와 같이 그도 부당하게 쫓겨난 여인을 등장시킨다. 수 많은 암시와 여주인공에게 따르게 하는 노정, 舜帝의 두 부인의 발원, 끝으로 자기 소설에 붙인 제목등으로 그는 사씨를 屈原과 비유했다. 屈原은 후기에서 정철이 그런 것처럼 버림받은 여인의 우의를 빌어 그의 서러움을 토로했었다. 유배를 당한 김만중도 여주인공을 그와 동일한 처지에 놓은 사실로 보아서 사씨는 그와 같은 우의적인 뜻을 지닌 인물이라는 결론은 자연히 내려지게 된다. 그러면 유한림의

<sup>89</sup> 朴晟義編, <松江, 蘆溪, 孤山의 詩歌文學>, 1966, pp. 44-68.

<sup>90</sup> 상계 <西浦集 西浦漫筆>, p. 653 (漫筆).

부인은 민비이거니와 또한 이 새로운 의의로 보아서는 김만중 자신이기도 하다. 屈原과 정철의 영상에 반영된 사씨의 영상은 또한 숙종의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南海의 배소에서 고독한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의 영상을 반영하여 준다. 거울 장난이 묘하게 꾸며진 것이었다.

배소에서 있을 때에 김만중이 자신을 屈原과 비긴 것은 전례가 있었다. 이미 1674년 봄 金城으로 유배되어서도 漢江에 떠 있는 서울 가는 배를 바라다 보며 <楚辭> 한 권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자신을 묘사한 시 한 수를 지은 바 있다.<sup>91</sup> 나중에 새로운 유배지 宣川으로 가는 도중에 1687년 9월에 平壤을 지나가면서 柳京이라는 도시의 별명에 빗대어놓고 그는 시를 또한 시를 지어<sup>92</sup> 강 언덕에서 노쇠한 버드나무 그림자가 잠기고자 하는 것은 楚客의吟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南海에서도 역시 屈原의 환영이 그를 쫓아다녔다. 머지 않아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陰森한 기운이 도는 한 시구에 그는 南海의 각기 다른 섬에 자기처럼 유배된 두 조카 鎭龜와 鎭圭를 상기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끝을 맺는다. "我今病瘴日昏昏, 死去誰收江邊骨."<sup>93</sup> 해변에 있는 시인의 붓에서 나온 강변이라는 말은 주목할 만하다. 汨羅江가에서 죽은 屈原의 죽음과 관련짓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벼슬생활에서 불운을 겪을 때에 김만중은 이와 같이 楚왕의 충직하고 불행한 신하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배소에서 지은 <남정기>에서도 여주인공을 屈原과 관련지어 놓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그녀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씨에 대하여 우의적인 뜻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항이 들어 있다. 그것은 지체없이 극락에 들어갔으면 하는 원을 말하는 사씨에게 娥

---

<sup>91</sup> 上同, p. 36 (集).

<sup>92</sup> 上同, p. 112 (集).

<sup>93</sup> 上同, pp. 86-87 (集).

皇 선녀가 한 대답에 있는 것이다. "부인이타일이축의모되련이와때머러스니머 물고저하나엇지어드리오남해도인이그대를인연이스니잠간의탁하미또한천의라" 고 선녀는 말한 것이다.<sup>94</sup>

南海道人이라는 이 느닷없는 명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말을 듣고 南海까지 가려면 아직도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데 대해 걱정하는 사씨의 말에 선녀는 덧붙여 말했다. "목금의인도하리잇스리니조곰도넘녀말나" 광연 발원이 사라지자 묘희라는 여승이 나타나 사씨를 그의 암자로 데려갔고 사씨는 거기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면 여승은 선녀가 예고한 인도자에 불과했다. 南海道人이라는 수호자는그 다음날 아침에야 주인공의 눈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처녀 시절에 찬사를 써드렸던 관음보살의 화상이었다. 이 그림의 관음보살은 대양 한 섬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sup>95</sup> 이런 지리적 배경을 補陀落 섬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섬은 <華嚴經>에 의하면,<sup>96</sup> 南海에 있으며 관음의 거처가 된 곳이다. 결국은 사씨는 이곳에 거처하는 관음 곁에서 은신처를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南海道人이란 말은 관음보살을 가르킬 때 좀 야릇한 명칭이다. 이를 볼 때 저자가 그런 완곡한 말을 쓴 것은 독자의 주목을 관음이 모셔져 있는 장소로 끌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南海道人이란 이 명칭은 김만중이 <남정기>를 지은 적소 南海島와 우연이 아닌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또 하나의 흥미스러운 의문이 자연히 난다.

南海島에 관음보살의 암자인 菩提庵이 있다는 기록이<sup>97</sup> <新僧東國輿地勝覽>에 있다. 그 곳은 오늘날까지 남쪽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순례지다. 이에 관하여 <三國遺事>에는 아무 기록도 없으나 소위 <한국寺刹大觀>이라는 책에

<sup>94</sup> 상계 全集, 권 4, p. 293 下右.

<sup>95</sup> 上同, p. 275 上.

<sup>96</sup> <大正新修大藏經>, 295番 參照.

<sup>97</sup> 서울, 1959, 권 2, p. 410.

는<sup>98</sup> 다음과 같은 전설이 실려 있다. 즉菩提庵은元曉大師가 친히 창건한 암자로서獨絶處인補陀落山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인도 남쪽 바다의補陀落山을 묘사하는〈華嚴經〉이나西域記를 보고 불교의 신자들은 그 묘사에 부합하는 장소를 자기들의 각각 나라에서 찾아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99</sup> 한국에서는〈三國遺事〉에 나오는江原道の洛山寺가 유명하다. 그러나 남쪽 신자들은 남쪽 바다에 있는 관음의 거처 즉南海의菩提庵도<sup>100</sup>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지방전설에 의하면 김만중이〈남정기〉를 쓴 적소가 한국의補陀落山이었다. 버림받은 부인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준 관음에 대하여南海道人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이 명칭을 택함으로써 독자에게 다시 한번 눈짓하며 우의적인 뜻을 시사해 준 것이다.

南海를 말한 선녀에게 사씨가 한 대답도 한편 다른 모양으로 이 해석을 확증해 준다. 여주인공은 그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을 걱정했다. 이 먼 거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씨는 어떤 시의 구절을 따오셔서 주고받는 말의 상징적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즉 사씨가"南海在天一涯"<sup>101</sup>라고 한 대답은古詩十九首 第一首 第四行에서 따온 것이며 이 시는 전통적으로 이종적 의의로 해석되어 온 것이었다. 겉으로는 원별한 애인들의 하소연이 되는 시이지만 군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귀양살이를 하는忠臣의 탄식으로 풀이되어 왔었다. 그러면 사씨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天一涯에 있다는南海는 버림받은 여인과 유배를 당한 신하, 즉 사씨와 김만중이 그들의所天이 된 분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

<sup>98</sup> 慶南地區篇, 1963, p. 15.

<sup>99</sup> 중국에서는浙江省에 있는補陀落寺르르 들 수 있고, 日本에는本州南端에 자리잡고 있는補陀落寺도 있다. 後者는金萬重의 적소의 지명과 같은 이름을 가진南海島라는 곳에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sup>100</sup> 慶尙南道 南海郡 二東面 尙前里.

<sup>101</sup> 상계〈原文和譯對照版〉, p. 95, 국문 판각본에는「하늘」이라는 말이 누락되어 암시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상계 全集, 권 4, p. 293 下右).

작품의 우의적인 뜻이 일단 밝혀지고 나면, 이제는 저자가 정말 이 뜻을 부여하였는가 생각해 보는 일이 남아 있다.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색들과 더불어 이 상징적 의미를 역자가 소설에 부가한 것이 아닌가? <남정기>의 원문 전승에 관해서 아직 확실성이 없으므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사실 현존하는 후기의 국문본들이 그야말로 김만중이 지은 원본에서 오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필자가 알기에는 아직 아무 것도 없으며 그것들이 모두 한문본에서 다시 국문으로 번역된 것이리라는 가능성도 쉽게 배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국문을 한역한 역자 김춘택 자신이 가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不自不自揆 頗增刪而整釐之"<sup>102</sup>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역자에 의하여 가해진 수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써 원작에 없었던 우의적인 뜻을 가미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는 <남정기>의 한문 필사본은 물론이거니와 국문판각본 까지도 종조부의 소작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종손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김춘택 자신이 쓴 글에 의거하여 작품 의미가 번역 이전에 원본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다행히 증명할 수 있다.

그의 증언은 <北軒集>에 기재되어 있다. 第十六卷의 말단에 作家가 1706년부터 1710년까지 濟州島에 귀양살이 하는 동안에 쓴 글을 취집하는 소위 「囚海錄」이라는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김춘택은 종조부의 임품을 찬양하고 그에 대한 추억을 회상한 다음,<sup>103</sup> 자신의 문학론을 피력하기 시작한다. 시에 이르러,<sup>104</sup> 그는 중국의 古歌詞는 그 곡이 대대로 전래하여 알려진 것마저 조선인들에게는 외국것이므로 생소한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또 중국 음악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사를 서투르게 모방하는 동국 시인들을 비난한다. 그에 반하여 국문으로 지어진 歌詞는 오히려 국악에

<sup>102</sup> 상계 <北軒集>, 권 16.

<sup>103</sup> 上同, 張 12뒤에서 張 16앞까지.

<sup>104</sup> 上同, 張 23앞.

무리없이 잘 들어 맞는다고 언명한 다음 김춘택은 국문 歌詞의 재가는 적소에서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은 송강 청철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춘택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시들을 노래할 줄 아는 늙은 비녀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이 종이 예전에 金尙憲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하여 자기 집의 여인들에게 그것을 배우게 했었다. 안목이 높은 사람의 이런 평가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고 김춘택은 자문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두편의 가사가 君臣의 離合을 남녀간의 애증에 비유했기 때문이라고 자답한다. 그리고 김춘택은 이것이 <離騷>에 진배가 거의 없다고 극찬한 뒤 그 종조부 서포옹이 두 가사를 손수 베껴 필사본의 머리에다 「諺騷」라고 적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제주도 유배시 동일한 주제를 빌어 別思美人詞라는 한 편의 가사를 국문으로 지어보았다고 밝히고 내용은 거기서 한문으로 요약하여 소개해 준다.

또 계속 말하기를 이런 시를 옛적에는 악기로 반주하는 맹인 악사에게 송영시켜 기생들도 그에게서 노래를 습득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 후 기생들이 선비들에게 그런 가사를 불러주게 되면 좌중에 그 뜻을 묻는 이가 가끔 있었다. 가사에 숨겨져 있는 戀君의 뜻을 아는 자는 이 여인밖에 없다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한 사대부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 김춘택은 선비들이 가사를 송강의 소작으로 알고 따라서 그 우의적인 응의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기생의 덕분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곧 이어서 <남정기>에 관한 말이 나온다.<sup>105</sup> 불현의 <南征記說>은 이런 문맥에 이은 것은 그가 종조부의 여러 소설들 가운데 <남정기>를 골라 한역한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남정기>에는 "非等閒之比"가 담겨

<sup>105</sup> 上同, 第二十五張 앞, 第六行.



있기 때문이라고<sup>106</sup> 그는 설명하는데 그 比는 바로 위에 상술한 비유 즉 송강의 두 가사에 있다고 한 "比"와 같은 것임을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남정기>는 敦民彝를 하고 裨世教를 할 만한 유일한 소설이라는 말은 이 소설을 논하는 어디서나 인용되어 있으나 이 내용을 해설하는 다음의 석줄은 생략된 것이 보통이다. 즉 사씨의 적개와 한림의 개화는 천성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말한 뒤 김춘택은 아래와 같이 덧붙여 말한다.

"不惟如是 推類引義, 將無往而非教人者, 所謂放臣怒妻與所天者, 天性民이 彝交有所發, 則如楚辭."<sup>107</sup>

위의 이 문장은 朱熹 소작 <楚辭集注>序에서 따온 인용문이며 김춘택은 楚辭에 대한 이 글귀를 <남정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放臣"이라는 두 자는 작중의 황제와 유한림과의 군신관계가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남정기>에 적용될 때에 유한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楚辭, 松江歌辭, 그리고 北軒의 別思美人詞에서도 그랬듯이 "放臣"이란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는 放臣, 즉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김춘택은 楚辭를 <남정기>의 본보기로 봄으로써 우의적 의의를 다시 한번 시사해준 것이다. 그는 또한 끝으로 가서 同 이 소설의 문체와 고결한 사상을 司馬遷이 서술한 屈原傳에 비김으로써 우의적 해석을 간접으로 확증해 주고 말았다.

불현은 이 소설의 은밀한 뜻을 밝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은 자기가 가필한 결과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히 했다. 즉 史記에 실린 屈原傳에 비기는 것은 원작이며 새 의미를 가지도록 자기가 수정한 작품에는 감히 그런 국찬

<sup>106</sup> 上同, 第八行.

<sup>107</sup> 上同, 第二十五張의 第五行.

을 하지 못 했을 것이다. 그리고 원작의 저자 이름을 무심코 또는 부대적으로 대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치 위에서 말하던 기생이 좌중에 가사의 작가를 일러 줌으로써 그 우의적인 뜻도 알려주었듯이 <남정기>란 서포 소작이라는 말을 거듭함으로써 김만중의 경력을 알던 독자에게 이 소설에도 붙여야 할 해석을 암시해 준 것이다.

김춘택은 또한 <남정기>라는 제목이 원작에 있었던 것으로 말해준 것도 중요하다. 제목은 역자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니면 그것이 내포하는 풍부한 뜻, 즉 屈原과 같이 남방으로 간 것, 洞庭湖畔에서 舜帝 두 부인과의 해후 등도 원작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헌은 원문을 한역할 동기가 등한시해서는 안될 비유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실감을 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을 찬양한 뒤 사씨 유한림 교씨 동청, 즉 노련한 독자라면 누구라도 서울 조정에 당시 현존한 사람과 쉽게 결부시킬 수 있던 바로 이 네 명의 이름을 대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복헌이 명시한 이 모든 것이 서포의 원작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김춘택은 자기가 가필한 것을 시인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不自揆) 또 "자못" (頗) 했다고 했으며 가한 수정을 "增刪而整釐之"라고 하여<sup>108</sup> 표백하였다. 역자의 그런 말로 보아서 그가 사필하던 것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한역의 반역이 아닌, 원문에서부터 직통으로 전승되어온 국문본의 유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상은 원문과 복헌에 의해 가해진 것을 자세히 분간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당과 싸움에 활약했던 김춘택은 종조부의 작품에 손질을 하면서 그 풍간적 또 비유적 성격을 보다 뚜렷하게 하기 위해 군데군데 가필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우리는 세부에 들어가 원문과의 그 합치 여부를 일일

---

<sup>108</sup> 上同, 張 26앞, 行 1\_2.

이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소포 소작 원문을 여태 알아내지 못 해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丁奎福교수가 <구운몽>에 대해 그랬듯이 <남정기>의 이본에 대하여도 고증적 연구가 요망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北軒集>에 실린 역자의 귀중한 증언은 이런 아쉬움을 다소 달래주고 있다. 저자의 이름이 의심할 여지 없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작중 주요 인물들, 줄거리의 주요 단계, 그리고 여주 인공의 이중 우의 등 가장 소중한 요소들은 모두 원작에 있었음도 입증된 것이다.